

# 16~17세기 近世 일본의 戰術과 조선과의 비교

노영구\*

1. 序 論
2. 16세기 近世 日本 戰術의 변화와 歩兵化
3. 17세기 이후 일본의 전술과 군사조직 구성의 변화
4. 17세기 이후 조선의 전술 변화
5. 맺음말

## 1. 序 論

약 20년 전부터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 16~17세기 近世 시기 군사사 연구에서 주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 한국과 일본의 군사사학계의 경우 군사와 관련된 적지 않은 연구가 나타났지만 군사사는 독자적인 역사학의 분야로 분명하게 자리잡지 못하였다. 이는 20세기 두 나라 사회가 겪었던 전쟁, 군사와 관련된 아픈 역사적 기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태평양전쟁 이전 일본의 억압적인 軍國主義 체제와 해방 이후 상당기간 지속된 한국의 파행적인 정치 체제인 軍部 중심의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부교수

정치체제로 인해 일반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소극적인 태향으로 군사사와 관련된 연구보다 이에 비판적인 연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실제 戰後 일본의 경우 일부 전술, 무기 등의 일부 개설적 서술을 제외 하고는 近世의 군사제도 등 군사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빈약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 역사학계의 풍조와 관련된 것으로 거대 담론 및 이론 중심의 이른바 戰後歷史學의 융성과 함께 전쟁과 군대를 군국주의를 구성하던 절대악으로 보고 기피하던 당시의 사상적 풍조와 관련이 있다.<sup>1)</sup> 이에 군사 관련연구가 이루어진 부분도 기본적으로 軍國主義나 近代 軍制의 전제로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1960년대 幕藩構造論 연구에서 軍役論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따름이다.<sup>2)</sup> 다만 1970년대 중반 幕府 권력의 주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直轄 軍團에 대한 이해가 시도된 적이 있는 정도이다.<sup>3)</sup> 1980년대 이후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근세 일본의 군사제도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연구가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笠谷和比古가 근세의 군사 편제를 騎馬隊, 足輕隊, 小荷駄隊로 분류하고 각각의 역할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sup>4)</sup> 高木昭作은 大名의 軍團을 구성하는 하위 군사조직인 備를 중심으로 보다 정치한 군사제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일본 근세국가의 본질을 거대한 兵營國家로 파악하고, 近世 武士를 戰士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그 군사력과 군단 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주목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sup>5)</sup> 그러나 아직 근세 군사력의 軍備나 戰術 등에 대한 본격적인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 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까지 보이는 일본의 근세 군사사 연구의 경향은 한국의 근세 군사사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보이고 있다. 한국의 근세 군사사 연구는

1) 鈴木直志, 「タブーカラの脱却-戰後の西洋史學における近世軍事史研究-」, 『戰略研究』3, 2005, 192~195쪽.

2) 根岸茂夫, 『近世武家社會の形成と構造』, 吉川弘文館, 2000, 17~18쪽.

3) 朝尾直弘, 「將軍政治の權力構造」, 『岩波講座 日本歷史』近世2, 岩波書店, 1975.

4) 笠谷和比古, 『近世武家社會の政治構造』, 吉川弘文館, 1993.

5) 高木昭作, 『日本近世國家史の研究』, 岩波書店, 1990 ; 笠谷和比古, 『近世武家社會の政治構造』, 吉川弘文館, 1993.

1940~50년대 15세기 軍役과 兵種에 대한 연구가 나타난 이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중반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近世朝鮮後期篇)으로 정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군사제도사를 정치사, 사회경제사의 시각에서 분석함에 따라 구체적인 軍備나 전술 등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1980년대 중반까지 존속하였던 한국의 군사정권에 대한 역사학계의 반발 의식이 본격적인 군사사 연구를 꺼렸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과 한국 모두 근세의 군사사에 대한 구체적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이후 들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사회경제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거대 이론(Grand Theory)이 쇠퇴함에 따라 변혁의 역사보다 지속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보다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아울러 1990년대 초반 냉전체제의 해체와 걸프전쟁, 북한 정세의 긴박감 등으로 인하여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전에 관심이 적었던 군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군사사 연구의 활성화로 나타났다.<sup>6)</sup> 군사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軍事의 기본 원리인 전술과 무기체계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아울러 유럽의 군사사 연구가 꾸준히 소개되면서 그 영향을 받았던 점은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특히, 1995년 Geoffrey Parker의 저서인 “The military revolution”이 『長篠合戰の世界史』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번역되면서 근세 유럽 軍事革命 시기의 주요한 군사적 변화, 예를 들어 머스킷총과 같은 개인화기와攻城用 火炮의 도입에 따른 전술과 성곽의 변화가 단순히 군사적 변화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근세 유럽사회 전반에 미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일본 근세의 군사조직과 전술, 무기 및 전쟁 양상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세 일본 사회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江戸幕府의 直轄 軍團의 형성 과정과 구체적 조직이 규명되었고<sup>7)</sup> 특히 구체적인 군사체제의 규명을 위해

6) 鈴木直志, 「앞의 논문」, 2005, 203쪽.

7) 小池進, 『江戸幕府直轄軍團の形成』, 吉川弘文館, 2001 ; 根岸茂夫, 『近世武家社會の形成と

이전에 주로 軍事思想史 연구에 이용되던 일본의 兵書나 『雜兵物語』와 같은 자료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중세 후반 일본의 전쟁 양상에 대한 종합적 성과가 제출된 것도 활발해진 군사사 연구의 양상을 엿보게 한다.<sup>8)</sup> 최근 久保田正志는 근세초기 일본의 전술, 무기 등 군사적 변화의 양상을 兵書 등을 이용하여 규명하고 유럽의 군사혁명 시기의 그것과 비교한 연구를 발표하였다.<sup>9)</sup> 아울러 유럽 軍事革命論의 주요한 지표로서 언급되는 전술적 변화, 군사조직편성의 변혁, 국가와 군대의 관계 변화 등의 요소 이외에 보다 광의의 사회의 변화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변화에는 일반 역사학계의 연구경향과 관련 없이 군사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개인과 단체에 의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는 점과 함께 日本史 이외에 다양한 인접 학문 분야에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 초 이태진, 허선도 등에 의해 국난극복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던 임진왜란을 최초로 보편적인 전쟁사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다.<sup>11)</sup> 이 연구는 전쟁사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인 전술, 군제, 보급, 통신, 성곽 등을 전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의 선구가 되었다. 실제 1990년대 중반 이후 군사사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동안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兵學과 전술에 대한 연구가 등장한 것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노영구는 16세기 후반 이후 조선후기 주요 兵書에 나타난 조선의 전술을 소개 분석한 본격적인 연구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조선의 군사적 변화를 유럽의 군사혁명론의 시각에서 비교한 연구도 발표하였다.<sup>12)</sup> 그러나 아직 조선의 군사적 변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構造』, 吉川弘文館, 2000.

8) 小林一岳·則竹雄一, 『戰爭 I - 中世戰爭論の現在』, 青木書店, 2004.

9) 久保田正志, 『日本の軍事革命』, 錦正社, 2008.

10) 石津朋之, 「『軍事革命』の歴史について-『ナポレオン戦争』を中心に-, 『戦史研究年報』4, 2001.

11) 이태진,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의 몇가지 문제」, 『군사』창간호, 1980 ; 허선도, 「임진왜란론-올바르고 새로운 인식」, 『千寛宇先生 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1985.

12) 노영구,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の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노영구, 「軍事

미쳤는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인접한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과의 비교 연구 및 상호 영향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 그리고 조선후기 무기와 전술의 문제에 대한 강성문, 박재광, 정해은, 장정수 등의 연구가 주목되고 있다.<sup>13)</sup> 이외에도 무기발달에 따른 성곽 등 군사시설의 변화와 전략의 변화에 따른 조선의 전반적 방어체제 등에 대한 연구 등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80년대 초 변화의 단초가 나타난 이후 1990년대 중반을 계기로 본격적인 관련 연구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간의 군사상의 변화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16~17세기 근세 일본과 조선의 전술 변화 양상을 소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두 국가 사이의 전술의 공통적인 요소와 다른 요소를 밝히고 그 원인을 검토하고 맺음말에서 두 나라의 향후 戰略文化 및 전략사상의 상이성에 대한 試論의 검토를 할 예정이다.

## 2. 16세기 近世 日本 戰術의 변화와 步兵化

### 1) 近世 日本 戰術 변화의 前提와 足輕의 등장

근세 일본의 전술 변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요소로 지목되는 것이 鐵砲(鳥銃의 일본식 표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전투 양상의 변화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鐵砲의 사용이 일본의 전술과 전략에 곧바로 '革命的'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논란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나가시노 전투(長篠合戰)에서 대량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鐵砲隊의 존재와 이를

革命論과 17~18世紀 朝鮮의 軍事的 變化, 『西洋史研究』36, 2007 등.

13) 강성문 외, 『한국무기발달사』, 국방군사연구소, 1994 ; 박재광, 「임진왜란기 화약병기의 도입과 전술의 변화」, 『학예지』4, 1994 ; 정해은,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短兵器와 『武藝諸譜』의 간행」, 『군사』51, 2004 ; 장정수, 「17세기 전반 조선의 포수 양성과 운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등.

이용한 연속 사격 전술인 齊射戰術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연구가 적지 않다.<sup>14)</sup> 이는 鐵砲의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鐵砲에 의한 전술적 변화보다는 오히려 鐵砲의 사용과 함께 평민출신의 보병 부대인 足輕의 등장도 당시까지 騎馬武士 중심으로 이루어져오던 전투 양식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전투력이 武士 개인의 용맹보다는 장기적으로 많은 병력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大名의 능력(資源의 동원과 管理)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 더 주목되고 있다. 이는 도입 초기 전체 군사 중에서 鐵砲를 가진 군사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고 다른 보병 兵種, 예를 들어 長槍兵, 弓兵이 전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전투의 최종적인 단계는 騎馬武士에 의한 돌격이라는 사실 등이 규명된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나가시노 전투(長篠合戰)에 대한 통설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鐵砲隊와 철포전술에 대한 강조는 근대 이후 武士를 부정하고 國民皆兵을 실현하였던 일본 구 參謀本部 등의 戰史 연구(예를 들어 『日本戰史』 시리즈)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sup>15)</sup>

16세기 이후 일본의 전술 변화 단초를 鐵砲 도입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찾기 위해서는 전국시대 이전 일본의 주요한 전술 변화의 계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전술의 변화는 대규모 전쟁의 경험과 새로운 전술 체계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국시대 이전 일본 군사사에서 가장 큰 대외전쟁의 경험은 13세기 후반 몽골의 일본 침공이라고 할 수 있다. 갑옷을 입고 弓矢와 太刀로 무장한 기병을 중심으로 개개 무사단의 돌격을 위주의 전술을 구사한 일본군에 대해 몽골군은 총대장의 지휘 하에 陣을 형성하여 공격과 퇴각을 하는 集團戰法을 구사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화약무기인 回回砲를 사용하여 일본의 기병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sup>16)</sup> 실제 13세기 후반 이후 일본의 전술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14) 藤本正行, 『長篠の戦い』, 洋泉社, 2010.

15) 根岸茂夫, 『앞의 책』, 2000, 18쪽.

16) 高橋典幸 外, 『日本軍事史』, 吉川弘文館, 2005, 75~78쪽.

14세기 초인 延慶年間(1308~1311)의 『太平記』에 의하면 騎兵의 弓矢 사격 전술이 그 이전 말을 달리며 활을 사격하는 騎射가 중시되던 것에서 이제는 말이 정지한 상태에서 사격하거나 아니면 말에서 내려 사격하는 이른바 下馬射가 적지 않았다. 아울러 歩兵에 의한 활 사격인 步射가 전투에서 점차 중시되었다. 이는 일본 활의 진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전의 활보다 대나무 부분을 증가시켜 탄성을 높인 우수한 보병용의 활인 三枚打弓이 개발되어 화살의 사격거리가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騎射보다 원거리에서 步射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었으므로 弓射歩兵이 크게 증가하였다. 弓射歩兵은 개인별 사격이 아닌 수백인 단위의 전투 집단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투의 집단화와 武具 사용의 전문집단화를 촉진시켰다. 정지하여 사격하였으므로 군사보병은 자신의 방호를 甲冑가 아닌 방패에 의존할 수 있었으므로 무거운 甲冑를 착용할 필요성이 없었다. 14세기 들어 경무장 보병을 의미하는 足輕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변화와 관련이 있다. 상대적으로 騎射의 전술적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기병의 전술적 역할은 弓矢 사격보다 적에게 돌격하여 근접전을 벌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기병은 말에서 내려 弓矢를 사격하고 이어서 말에 올라타 太刀로서 근접전을 하는 이른바 馬上打物을 행하게 된다.<sup>17)</sup> 이러한 양상은 유럽에서도 백년전쟁 당시 영국은 새로이 개발한 6피트 크기의 우수한 長弓의 채택으로 1346년 크레시 전투에서 프랑스의 기병을 대패시킨 이후 弓兵의 우위를 바탕으로 적군의 기병을 창으로 무장한 보병이 저지하는 유기적인 전술이 도입되면서 급격히 보병의 비중이 증가하고 전투의 주역이 되는 이른바 ‘보병혁명(Infantry Revolution)’이 나타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sup>18)</sup>

몽골의 침입 이후 일본의 전술은 원거리 사격이 가능한 경무장 보병의 弓射가 점차 중요시되고 기병의 전술적 역할이 馬上打物로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각각의 武具를 전문적으로 익힌 兵種별 집단 전술이 나타

17) 近藤好和, 『騎兵と歩兵の中世史』, 吉川弘文館, 2005, 154-172쪽.

18) Clifford J. Rogers, “The Military Revolution of the Hundred Years War” *The Military Revolution Debate* (Westview Press, 1995) pp.59-60.

나는 점 등은 이후 일본의 전술과 군사제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15세기 중반 일어난 應仁의 亂(1467)은 그 이전 기병이 전투의 주역이었던 일본의 전술상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應仁의 亂은 기본적으로 將軍 足利義政의 후계자를 둘러싼 幕府 내부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격화된 것이었지만 細川軍(東軍)과 山名軍(西軍)이 각각 16만, 9만의 대군을 모아 17년 동안 교오토(京都)를 중심으로 싸운 대규모 전쟁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전투가 들판에서 벌어진 野戰이 아닌 도시인 교오토에서의 시가전이 반복되는 양상이었다. 시가전의 양상은 전투에서 보병의 확대와 역할의 증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보병의 역할 증대는 덜 부유한 계층 출신이 전공을 세워 武士 계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sup>19)</sup> 이전보다 대규모 군사가 동원되어 전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규모 보병의 동원에 따른 것이었다. 이른바 足輕의 등장인 그것이다.

새로운 병종으로서 足輕의 출현은 사회경제적, 군사적 두 측면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이 시기의 足輕은 최초 정규군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교오토의 시가전에 수시로 참가하였던 일종의 傭兵隊였다. 그 출신도 교오토 주변의 몰락 농민과 浮浪人들로서, 戰國時代 자신의 領國에서 조직, 훈련된 상비군적인 足輕隊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sup>20)</sup> 대규모 몰락 농민과 부랑인이 교오토 일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의 기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428년(正長 元年) 일어난 최초의 대규모 농민반란(土一揆) 직전에 기후 불순과 흉작, 그리고 '三日病'으로 불린 惡疾의 유행으로 정치, 사회적 불안정이 농민반란(土一揆)을 낳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몰락 농민과 부랑인이 발생하였다.<sup>21)</sup> 기후 불순에 따른 대규모 몰락 농민과 부랑인의 도시 지역 이주는 이 시기 세계적 현상의 하나였다. 15세기 전반기 유럽에

19) Peter A. Lorge, *The Asian Military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53-54.

20) 永原慶二, 『日本の歴史』10(下剋上の時代), 中央公論社, 1965, 281-283쪽.

21) 永原慶二, 『앞의 책』 68-69쪽.

서도 豪雨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빈발하게 발생하여 기근과 疫病이 만연하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 따라 잦은 전쟁이 계속되었고, 전쟁을 피하여 농민들은 도시의 성벽 내로 도피함에 따라 프랑스 지역에서만 3,000개 마을이 폐허화되고 이로 인해 다시 식량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악순환이 일어났다.<sup>22)</sup> 應仁의 亂에 출현한 대규모 足輕은 이러한 사회적, 기후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14세기 말부터 전투에서 본격적으로 徒歩化 현상이 나타난 것과는 관련이 크다. 예를 들어 이전의 전투에서는 근접전을 수행하는 기병인 이른바 打物騎兵이 전투의 주체였지만 말에서 내려 근접전을 벌이는 이른바 下馬打物の 현상이 나타나고 弓射騎兵이 점차 줄어들고 弓射歩兵이 증가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弓箭과 근접전 무기[打物]의 역할 분담도 현저해졌다.<sup>23)</sup> 이러한 상태에서 應仁의 亂의 경우 시가전이 주요 전투 양상이었으므로 기병의 돌격보다는 시가지에 몸을 숨긴 보병에 의한 기습이 더 효과적이었다. 실제 그 직전인 남북조시대 주요 전투 양상이 영주의 강제적 명령에 따라 전장에 나가던 것이 아닌 지역의 안전보장 등의 반대급부가 확실한 경우 동원되던 무장한 주민인 ‘野伏(のぶし)’<sup>24)</sup>에 의한 게릴라 전과 기습, 매복 전법 등의 이른바 野伏戰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應仁의 亂에서 대규모 足輕이 출현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대규모 몰락농민과 부랑인의 존재, 전투에서 徒歩化 경향과 이로 인한 보병의 중요성 증가로 인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술의 모색과 전쟁 규모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이 시기 足輕이 체계적인 편성과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시로 동원되는 傭兵의 성격으로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해 곧바로 일본의 전술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지는 못하였으나, 사용이 편리하고 위력이 있는 새로

22) B フェイガン(東郷えりか/桃井綠美子 譯), 『歴史む變えた氣候變動』, 河出書房新社, 2009, 160-161쪽.

23) 近藤好和, 『앞의 책』, 2005, 200-201쪽.

24) 野伏에 대해서는 飯森富夫, 『野伏と戰場』, 『戰爭 I - 中世戰爭論の現在』, 青木書店, 2004, 97-102쪽 참조.

운 보병용 무기 체계가 도입될 경우 곧바로 혁명적 전술 변화와 사회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전쟁의 대규모화와 歩兵의 확대

應仁의 亂을 계기로 기병 중심에서 보병이 점차 중시되는 전쟁 양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지만 본격적으로 보병이 전투의 주역이 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 15세기 말 戰國時代가 시작되어 키나이(畿内) 일대가 분열되고 각 大名의 領國이 分立되었지만 대규모 전쟁으로 곧바로 전환된 것은 아니었다. 16세기 전반기는 大名들이 幕府로부터 자립하여 경쟁적으로 分國을 형성하려 한 시기로 대규모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와 知行의 貫高(칸다까 : 貫의 액수로 토지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를 정하는 등 내부적 체제 정비에 힘을 기울인 시기였다. 이를 통해 戰國大名들은 자신의 領國 내의 결제를 효과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550년 경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國境 재편을 둘러싼 총력전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타케다(武田)氏와 우에스기(上杉)氏의 카와나까지마(川中島) 전투 등 대규모 전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sup>25)</sup> 이 시기 戰國大名 간의 전쟁에서는 만 단위의 군세가 동원되고 대규모 會戰과 공성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군대의 규모가 급격히 커짐에 따라 군대 내에 足輕 이하 雜兵의 비중이 매우 높았고 병참의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으므로 쌍방이 국경 일대에서 대치하면서 장기간 전쟁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26)</sup> 이 시기 군사를 대규모로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領國支配體制의 정비를 통해 농민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문적인 군인으로 충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5세기 후반~16세기에 걸쳐 동아시아 지역은 小氷期로서 기후가 寒冷化

25) 朝尾直弘 등(이계황 외 옮김), 『새로 쓴 일본사』, 창작과비평사, 2003, 236쪽.

26) 藤田達生, 『戰爭と城』, 『日本史講座』5(近世の形成), 東京大學出版會, 2004, 255-256쪽.

하여 잦은 비가 계속되었다. 장기간의 자연재해로 인해 동아시아 세계의 동요 현상이 나타났다.<sup>27)</sup> 잦은 자연재해로 농업 생산력은 크게 감소하였고 여기에 戰國의 爭亂이 계속됨에 따라 향촌사회가 황폐화되어 만성적인 기근과 疫病이 계속되었다.<sup>28)</sup> 한 기록에 의하면 1535년 美濃에 큰 홍수가 나서 2만여 명이 사망하고 만여 가옥이 유실되었다. 1540년 봄에는 유사 이래 大饑饉이 일어나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아울러 疫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였다.<sup>29)</sup>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도 소빙기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비와 큰 바람 등의 자연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고,<sup>30)</sup> 유럽에서도 1527년부터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는 기후 변동의 폭이 커지다가 156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소빙기로 접어들어 여름의 강우량이 크게 증가하고 산의 빙하가 내려오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sup>31)</sup>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력 감소의 시기에는 농촌으로부터 대규모의 인구가 행정력이 유지되고 상품의 流通을 통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적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6세기 중반 이후 戰國의 전쟁 양상이 이전보다 규모가 커지고 국경 재편을 둘러싸고 전투가 격화되면서 전투원의 피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군사 확보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력인 騎馬武士를 보조할 병력으로서 도시 일대에서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대규모 군사를 모집하여 군병으로 충원하고 아울러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가진 농민들도 군병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들은 일반 武士團이 主從制를 원리로 개인별로 충원되었던 것과 달리 촌락을 기초로 성립하였으므로 이들에 의한 전투는 자연스럽게 촌락별로 군사를 조직한 집단 전투로 전환되었다.<sup>32)</sup>

도시와 촌락에서 모집한 다수의 군병은 주로 長槍으로 무장한 足輕으로

27) 이태진, 『새 한국사』, 까치, 2012, 335-340쪽.

28) 藤木久志, 『飢餓と戦争の戦國む行く』, 朝日新聞社, 2001.

29) 矢田俊文, 『戦禍・災害と人人の生活』, 『日本の時代史』12(戦國の地域國家), 吉川弘文館, 2003, 293쪽.

30) 李泰鎮, 「‘小氷期’(1500~1750년)의 天體 現象的 原因」, 『國史館論叢』72, 1996.

31) B フェイガン, 『앞의 책』, 163-167쪽.

32) 朝尾直弘, 『16世紀後半の日本』, 『岩波講座 日本通史』第11卷(近世I), 岩波書店, 1993, 18~19쪽.

활용하였는데, 이들을 대규모 집단으로 편성하여 적극적, 공세적인 전술로 운용한 인물이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였다.<sup>33)</sup> 기본적으로 長槍은 집단적으로 운용할 때에는 정면에 올바르게 정렬시키기만 하면 되었으므로 많은 훈련이 필요로 하지 않았다.<sup>34)</sup> 전투시 장창 足輕집단은 활과 鐵砲의 원거리 무기 부대와 武士 집단 사이에 위치하면서, 박자를 맞추어 장창을 내려치면서 상대의 장창 足輕 집단과 겨루는 형식의 전투를 주로 하였다.<sup>35)</sup> 이 시기 장창 足輕의 전술적 비중이 높았고 공세적으로 운용될 수 있었던 것은 16세기 중반까지 일본의 전술 형태에서 아직 충분한 鐵砲가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는 철폐의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장창 足輕의 비중과 역할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일본에 鐵砲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543년 타네가시마(種子島)에 표류한 포르투갈 상인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1990년대 초 이후 최초 전래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다.<sup>36)</sup> 전래 직후 곧바로 種子島, 根來, 國友, 堺 등지에서 화약과 鐵砲의 제조가 이루어지고 급속히 일본 全國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549년부터는 최초로 黒川崎의 전투에서 鐵砲가 사용되기 시작하여<sup>37)</sup> 30년만에 일본의 군제, 전술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sup>38)</sup> 그러나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체 군사의 구성에서 鐵砲의 낮은 비중 문제를 들 수 있다. 鐵砲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전투로 알려진 나가시노 전투(1573) 직후인 1575년 우에스시 켄신(上杉謙信)의 「軍役帳」에 의하면 39인의 家中의 武將이 거느린 군사 5,514명 중 장창병(鎗持)은 3,609명, 鐵砲兵(鐵砲持) 321명, 旗手(大小旗持) 368명, 기병(馬上) 566명, 그리고 각종 雜兵(手明) 650명

33) 脇田修, 『織田信長-中世最後の覇者-』 中央公論社, 1987.

34) Michael Roberts, "The Military Revolution, 1560-1660" (*The Military Revolution Debate* 再收).

35) 久保田正志, 『앞의 책』, 2008, 22쪽.

36) 宇田川武久, 『鐵砲傳來』, 中央公論社, 1990.

37) 宇田川武久, 『東アジア兵器交流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93, 156쪽.

38) 杉山博, 「中國・朝鮮・南蠻と技術の軍事力」, 『岩波講座 日本歴史』 第8卷(中世4), 岩波書店, 1976, 80-82쪽.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39)</sup> 즉 당시 전체 군사에서 鐵砲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직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장창병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기병의 비중도 10% 이상임을 고려한다면 16세기 후반 일본의 전술이 철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 전투에서의 鐵砲의 사용이 1560년대 후반 현저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鐵砲 사용에 가장 선진적이었다고 하는 織田信長の 경우에도 1569년 이후 鐵砲의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나가시노 전투 이후에는 패자였던 武田氏에서도 鐵砲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었지만<sup>40)</sup> 이것이 곧바로 鐵砲의 대량 배치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아울러 野戰에서 철포가 대규모로 사용되고 일본 전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 전국시대 후반기까지 계속 弓을 가진 군사(弓衆)가 전투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鐵砲의 보급 후에도 그 규모가 鐵砲兵에 버금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41)</sup> 다만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弓兵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 鐵砲의 방어적 속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철포는 안전성과 조작성은 떨어지지만 명중의 정확도가 높았다. 이는 명중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안전성과 조작성이 높아 평원에서의 步兵의 집단 전투에 적합한 유럽형의 齒輪銃, 燧石銃과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鐵砲는 騎馬隊의 돌격을 성 내에서 방어하거나 아니면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사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다.<sup>42)</sup> 따라서 鐵砲 도입 이후 일본의 野戰 전술에서 한 동안 철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철포의 비중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전술 체계에서 騎馬武士의 돌격이 계속 강조되는 것 등은 철포가 가진 방어적 속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는 유럽의 개인화기인 Musket의 도입 초기 대형의 중앙에 銃兵이 위치하지

39) 杉山博, 『日本の歴史』11(戰國大名), 中央公論社, 1965, 194-196쪽.

40) 宇田川武久, 『앞의 책』, 1993, 202-206쪽.

41) 高橋典幸 外, 『앞의 책』, 2005, 123-124쪽.

42) 所莊吉, 『火繩銃』 雄山閣, 1969.

못하고 주위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16세기 중반 스페인의 tercio전술과 같이 長槍 方陣의 주위에 포진하여 장창 방진을 엄호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sup>43)</sup> 따라서 鐵砲가 초기부터 곧바로 일본의 野戰 전술을 전반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철포는 성곽 방어전의 경우 초기부터 매우 큰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563년 11월 出雲白鹿城詰口 전투의 「吉川元春軍忠狀」에 의하면 공격측 부상자 45명의 부상 원인이 刀 1명, 돌〔礮〕 5명, 화살〔矢〕 6명, 鐵砲 33명인 것을 보면 성곽 방어에서 鐵砲의 위력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44)</sup> 점차 야전에서도 鐵砲는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전국시대 후반기 전투원의 피해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45)</sup> 따라서 성능상의 제약은 있었지만 위력이 큰 철포를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포를 중심으로 일본의 군사제도와 전술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조선과 일본의 전쟁인 임진왜란은 일본의 군사상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3. 17세기 이후 일본의 전술과 군사조직 구성의 변화

#### 1) 임진왜란과 17세기 日本의 戰術 변화

16세기 후반의 전국시대 직후에 일어난 조선과의 제1차 전쟁(壬辰倭亂)은 일본의 기존 군대 편성과 근세 일본 전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계기

43) Knox MacGregor · Murray Williamson, *The Dynamics of Military Revolution, 1300-20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37 ; Jorgensen Christer, *Fighting Techniques of the Early Modern World, AD 1500-AD 1763* (Thomas Dunne Books, 2006).

44) 大類伸 · 鳥羽正雄, 『日本城郭史』, 雄山閣, 1963, 450쪽.

45) 矢田俊文, 『앞의 논문』, 2003, 316쪽.

었다. 이는 당시 전쟁에 참여하였던 일본군의 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시대 직후에 일어난 조선과의 제1차전쟁 당시 豊臣秀吉이 高橋宗茂, 高橋統虎 형제에게 부과한 군역 내용을 보면 총 인원 3,000명 중에서 전투원은 1,400명으로서 구체적으로 歩士, 騎士가 각각 150명, 鐵砲足輕이 200명, 弓足輕이 100명, 槍足輕이 500명 등이었다. 따라서 鐵砲의 비중은 弓의 2배 정도로서 이전보다 상당히 증가하고 전체 전투원 중에서 14% 이상이였다.<sup>46)</sup> 즉 전국시대 후반에 비해 약 20년 동안 전체 군사 중에서 鐵砲足輕의 비중이 2배 가까이 완만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과의 제2차 전쟁(丁酉再亂) 시기 高橋宗茂, 高橋統虎 형제에게 부과된 군역에서는 弓兵과 鐵砲兵의 비율이 1 : 3.8로 鐵砲의 비중이 2배 가까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47)</sup> 鐵砲의 비중이 이 전쟁 동안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임진왜란 직후인 1600년 일본의 패권을 놓고 벌인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東北 지방의 大名인 다테 마사무네(伊達正宗)가 보낸 3천 명의 군사 중에서 기병 420명 등을 제외한 보병 전투원 2,300명 중에서 鐵砲兵이 1,200명에 달하여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sup>48)</sup>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기병 돌격에 적합하지 않은 조선의 지형으로 인해 長槍兵의 엄호가 그다지 요구되지 않은 것이 지적되기도 한다.<sup>49)</sup> 그러나 지형적인 요인보다 일본군이 이 전쟁에서 겪었던 전술적 어려움이 일본군의 鐵砲 확대와 전술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野戰의 경우 일본군은 조선에 참전한 명나라 騎兵隊의 돌격에 무척 고전하였다. 명나라 기병은 창검만으로 가볍게 무장한 것이 아니라 각종 화포, 火箭의 지원을 받는 중무장 형태의 기병이었다. 보병의 경우에도 대형 화포 이외에 조총과 虎蹲砲 등 가벼운 화기와 長槍, 狼筈 등 신

46) 伴三千雄, 「朝鮮役における兵器と戦法の變遷」, 『日本兵制史』, 日本學術普及會, 1933, 141쪽.

47) 鈴木眞哉, 『戰國軍事史への挑戦』, 洋泉社, 2010, 73쪽.

48) 舊參謀本部, 『關ヶ原の役』, 徳間書店, 2009, 295쪽.

49) Peter A. Lorge, *The Asian Military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60

형 근접전 무기로 무장하여 화력 면에서 일본군을 능가하였다. 예를 들어 평양성 전투(1593)에서는 대규모 화력전과 보병의 돌격이 큰 역할을 하였고, 稷山の 전투(1598)에서는 조총으로 공격하는 일본군에 대해 明軍은 화포와 火箭을 연이어 사격하고 이어 棍棒으로 무장한 明의 기병이 일제히 돌격하여 일본군을 격파하였다.<sup>50)</sup> 즉 이 전쟁의 주요 국면을 전환시킨 전투의 경우 明軍의 火力 우위가 전투를 결정지었다.<sup>51)</sup>

궁병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를 대체하면서 鐵砲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明軍의 화력 우위와 함께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기에 弓矢가 가진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鐵砲는 관통력이 뛰어나고 사정거리도 멀었지만 발사 속도가 弓矢에 비해 늦었고 급박한 상황이나 악천후에서는 사격하기 어려운 취약점이 있어 상당한 규모의 弓兵과 함께 편성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궁시는 甲冑로 보호된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기에는 관통력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비해 火繩銃은 탄환의 속도가 매우 빨라 명중할 경우 갑옷을 입은 신체의 관통 이후에도 신체 내부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 적군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sup>52)</sup> 임진왜란의 전쟁 경험은 이후 일본의 군사제도 및 전술에 큰 변화를 주게 된다. 즉 織田信長에 의해 확립된 鐵砲, 弓矢 사격 이후 長槍 근접전과 기마 무사의 돌격을 주된 양상으로 하던 일본의 전술은 鐵砲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었다.<sup>53)</sup> 이는 1616년 10월에 발발한 오사카 겨울 전투(大坂冬の陣)에 東軍으로 참가하였던 伊達家の 陣立書を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伊達正宗 군은 3,430정의 鐵砲를 갖춘데

50) 李光濤, 『朝鮮「壬辰倭禍」研究』,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1972, 213-228쪽 ; 盧永九, 「앞의 논문」, 2002, 96-97쪽.

51) 杉山博, 「앞의 논문」, 1976, 51-52쪽. 명군의 경우에도 火器의 지원없이 기병 단독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일본군을 공격하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벽제관 전투와 같이 기병 단독으로 전진하는 경우에는 일본군 鐵砲隊의 사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金子常規, 『兵器と戰術の日本史』, 原書房, 1982, 126-129쪽).

52) Max Boot, *War Made New: Weapons, Warriors,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Gotham, 2007) p.58.

53) 예를 들어 1607년 家中에 대한 군역 규정에서는 1,000石의 경우 鐵砲 6, 槍 3, 旗 1로 규정되어 弓이 소멸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山口啓二, 「藩體制の成立」, 『岩波講座 日本歴史』 第10卷(近世2), 岩波書店, 1963, 135쪽).

비해 장창은 1,010本, 弓은 100張에 불과할 정도로 철폭의 비중이 절대적이었고 弓은 전술적 의미가 상당히 약해졌다.<sup>54)</sup> 그리고 이듬해 일어난 오사카 여름 전투(大坂夏の陣)의 幕府軍役과 동일한 元和軍役令에 의하면 오사카 겨울 전투에 비해 다시금 長槍의 수가 반감하고 鐵砲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는 오사카 겨울 전투를 치르면서 승패를 결정지은 것이 鐵砲임을 다시금 확인하였기 때문이다.<sup>55)</sup>

鐵砲의 비중이 16세기 말부터 급속히 높아지면서 철폭 중심의 전술로의 전환은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철폭의 대량 사용은 철폭이 가진 근본적인 취약점인 느린 발사 속도를 보완할 전술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당시 철폭은 최대 사정은 500미터이고 유효사정은 100미터 정도로 1분간 최대 4발 사격이 가능하였지만 개인별 차이가 적지 않았고 기병이 질주할 경우 간단히 돌파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sup>56)</sup> 弓兵은 거의 의미없을 정도로 축소되었지만 長槍兵을 17세기 전반기에도 상당한 규모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鐵砲 장전 시간 동안 대열의 앞에서 鐵砲兵을 엄호하기 위해 상당 규모를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7세기 유럽 군사사에서 보병의 주된 무기가 장창에서 원거리 화약무기인 머스킷 총(Musket)으로 변화하면서 장창의 역할이 銃兵이 장전하는 동안 전방에서 엄호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sup>57)</sup>

鐵砲의 연속적인 사격과 장창의 전방 엄호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전술 체계와 훈련이 요구된다. 특히 16세기 후반 이후 전투의 규모가 만 단위 이상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兵種이 함께 전투를 행함에 따라 정교한 전술 체계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戰國時代 후반 군사조직에서 鐵砲, 長槍, 弓兵 이외에 다수의 대소 旗手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54) 谷口眞子, 「移行期戰爭論-大坂冬の陣の綜合的檢討」, 『戰爭と平和の中近世史』, 青木書店, 2001, 185쪽.

55) 山口啓二, 「앞의 논문」, 1963, 130-131쪽.

56) 朝尾直弘, 「앞의 논문」, 1993, 25쪽 ; 藤本正行, 『信長の戦争』, 講談社, 2003, 199쪽.

57) Michael Roberts, "The Military Revolution, 1560-1660" (*The Military Revolution Debate* 再收)

단순히 적에 대하여 示威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sup>58)</sup> 전술이 체계화, 정교화되는 상태에서 많은 군사를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세기 후반 이후 전술의 체계화, 정교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陣立書와 備의 출현이다.

陣立書란 특정의 전투를 상징하여 지형을 고려하고 상대의 세력을 살펴서 우리측 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병력의 배치와 행군 시 부대의 순서 등을 정한 군사 문서이다. 이를 통해 지휘관은 효과적으로 휘하의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술을 발휘할 수 있었다.<sup>59)</sup> 陣立書가 최초로 작성된 것은 1584년 豊臣秀吉 진영과 織田信雄·徳川家康 연합군이 벌인 코마키 나가쿠데(小牧·長久手)의 戰鬪로서<sup>60)</sup> 일본의 전쟁 양상이 물량전, 소모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던 이 시기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陣立書を 통해 당시 일본의 일반적인 전술 형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대의 행군 순서 및 진법 등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陣立書는 대규모 부대를 지휘하기 위해 명령계통과 상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 중세 군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이른바 公儀軍의 출현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sup>61)</sup>

대규모 부대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행군 절차와 전술, 명령체계를 담은 陣立書와 함께 새로운 군사조직도 나타났다. 備(そなえ)의 출현이 바로 그것이다. 陣立書에 나타난 大名의 군단은 士大將 혹은 家老 등이 지휘하는 수 개의 備로 편성되는데, 備는 전투에서 보급까지 작전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전투수행 단위라고 할 수 있다. 備의 내부에는 여러 개의 전투 단위로 구분되었는데 그것은 적과 언제 조우하여도 곧바로

58) 高橋典幸 외, 『앞의 책』, 2005, 122~123쪽.

59) 陣立書의 정의와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三鬼清一郎, 「陣立書の成立をめぐっ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38, 1992, 254~255쪽 참조.

60) 朝尾直弘, 『앞의 논문』, 1993, 20~21쪽.

61) 藤田達生, 『앞의 논문』, 2004, 258쪽.

전투할 수 있도록 배려된 押(=行軍)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sup>62)</sup> 대체로 ① 大名 직속의 足輕으로 구성된 鐵砲隊, 長柄隊, 弓隊, ② 중핵 부대인 騎馬隊, 그리고 ③ 보급부대인 小荷駄隊 등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한 備의 행군 부대의 배치를 재현한 다음의 그림을 통해 당시 備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 備의 행군 양상



## 2) 17~18세기초 군사조직 구성 변화를 통해 본 일본의 전술 변화 양상

앞 절에서 소개된 備의 조직 구성을 통해 당시 일본의 구체적인 전술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절에서는 高木昭作의 다양한 備 구성에 대한 소개와 근세 일본의 여러 兵書에 나타난 備 구성의 변화 양상을 통해 17~18세기 초 鐵砲, 弓, 鎗 등의 足輕隊과 騎馬隊 등의 구성 변화를

62) 高木昭作, 『日本近世國家史の研究』, 岩波書店, 1990, 3쪽.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세 일본의 전술 변화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먼저 나가시노 전투 직후인 1577년, 小田原後北條氏が 그 지배하의 岩槻城主 太田氏에 지시한 군단 편성 방식을 보면, 小旗(120명) - 鎧(600명) - 鐵砲(50명) - 弓(40명) - 徒士(250명) - 騎馬(500명) - 小荷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보급부대인 小荷駄隊를 제외하면 총 1,560명의 군사 중 무사인 徒士, 騎馬가 750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足輕은 전체 690명으로 그 중 장창병(鎧)은 600명으로 절대 다수(87%)를 점하고 있다. 아울러 鐵砲와 弓足輕의 비중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sup>63)</sup> 즉 전국통일 직전인 16세기 후반의 일본의 전술은 최초 鐵砲와 弓의 지원 사격 이후 이루어지는 장창대(鎧)의 집단 공격이 매우 중요한 전술의 하나였음을 군사조직 구성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鐵砲, 弓의 사격 및 장창대의 집단 공격 이후 가장 후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무사의 돌격으로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었다. 아직 원거리 무기로서 弓의 역할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과의 전쟁을 계기로 16세기 말부터 일본의 군사체제에서 鐵砲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철폐 중심의 전술체계가 나타났음을 앞 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備 내부의 구성과 각 兵種의 순서와 구성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17세기 중반기 편찬된 여러 兵書を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兵書는 기본적으로 편찬 이전의 전쟁 경험 등을 정리하여 이를 전술로 체계화시킨 군사관련 서적으로서,<sup>64)</sup> 17세기 중반기 일본의 병서를 통해 그 직전인 17세기 전반기의 일본 전술을 이해 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江戸幕府에 정식 채용되었던 北條流와 그 영향을 받았던 山鹿流의 여러 병서에서는 17세기 전반기 군사의 편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엿볼 수 있다.<sup>6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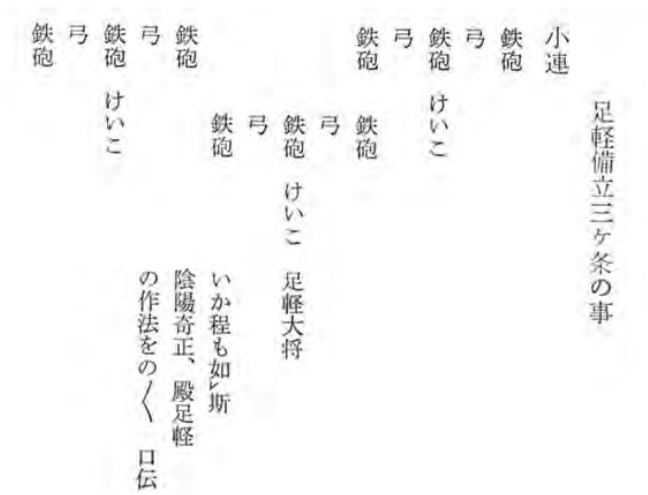
63) 高木昭作, 『위의 책』, 1990, 330-336쪽.

64) 袁庭棟·劉譯模, 『中國古代戰爭』, 四川省社會科學出版社, 1988, 644-647쪽.

65) 근세 일본의 兵學과 각 流派에 대해서는 石岡久夫, 『日本兵法史』(上·下), 雄山閣, 1972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北條流 兵學은 德川幕府에 들어가 大目付까지 올라갔던 北條氏長이 창시하였던 流派로서, 北條氏長은 17세인 1625년부터 43세인 1651년까지 27년간 다양한 병서를 저술하였다.<sup>66)</sup> 北條氏長이 저술한 병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兵法雄鑑』(1645)에 의하면 전투시 鐵砲와 弓足輕은 반드시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하였다. 足輕大將이 지휘하는 15명 편성의 작은 단위 편성인 小連의 경우 鐵砲 옆에 弓, 이어서 鐵砲足輕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즉 鐵砲足輕 9인, 弓足輕 6인으로 이루어졌다.<sup>67)</sup> 다음의 <그림 2>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2> 『兵法雄鑑』의 小連 구성



위의 <그림 2>와 같이 鐵砲足輕와 弓足輕이 함께 편성되어 있는 점을 통해 원거리 공격을 위한 弓足輕의 전술적 역할이 鐵砲足輕에 비해 그다지 낮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군사들의 행군시에도 鐵砲足輕隊과 弓足輕隊를

66) 石岡久夫, 『日本兵法史』上, 雄山閣, 1972, 351~372쪽.

67) 『兵法雄鑑』 권25 足輕(石岡久夫 編, 『日本兵法全集3, 北條流兵法』, 人物往來社, 1967, 308~309쪽).





사용되던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의 전술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兵要錄』은 다른 일본의 병학이 『孫子』, 『吳子』 등 중국고대 병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에 비해 江戸시대 초기 일본에 유입되었던 『紀效新書』 및 『武備志』의 내용을 참조하여 鐵砲 등 화약 무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술을 소개하고 있다.<sup>71)</sup> 이는 이 책의 군사 편성체계에 잘 나타나 있다. 군사 편성은 銃手와 弓手는 5人을 1伍로, 5伍 또는 10伍를 1隊로 하고 隊長(혹은 銃頭)이 지휘하였다. 騎兵은 50명 또는 40명을 1隊(혹은 備)로 하고 隊長(혹은 隊總, 土隊長)이 지휘하도록 하였다.<sup>72)</sup> 기병과 보병의 여러 兵種을 합친 기본 전투편성(單隊)은 鳥銃手 2隊, 弓手 1隊, 長槍手 1隊, 騎兵 1隊로 이루어졌다.<sup>73)</sup> 즉, 鐵砲가 弓의 2배에 달하여 弓兵의 비중이 이전의 『兵法雄鑑』에 비해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이 완성된 것은 1666년으로서<sup>74)</sup> 『兵法雄鑑』 편찬 이래 20년이 지나면서 일본의 군사편성과 전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長沼流 兵學에서는 鐵砲의 비중이 증가함과 함께 長槍(=長柄)의 전술적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군사들의 행군 순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행군 순서는 기본적으로 전투시의 전투 순서와 동일하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兵要錄』에서는 1隊 행렬의 경우 선두에 甲長이 서고 이어 銃隊 - 弓隊 - 旌旗 - 騎兵 - 甲長이 서도록 하였다. 이어서 隊長의 銃手 - 弓手 - 長槍手が 서고 이어 旌幟·金鼓·兵器가 선 뒤편에 隊長이 親兵의 호위를 받으며 서게 된다.<sup>75)</sup> 이러한 모습은 다음의 <그림 5> 「軍行一隊列次之圖」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71) 石岡久夫, 『日本兵法史』(下), 雄山閣, 1972, 231~2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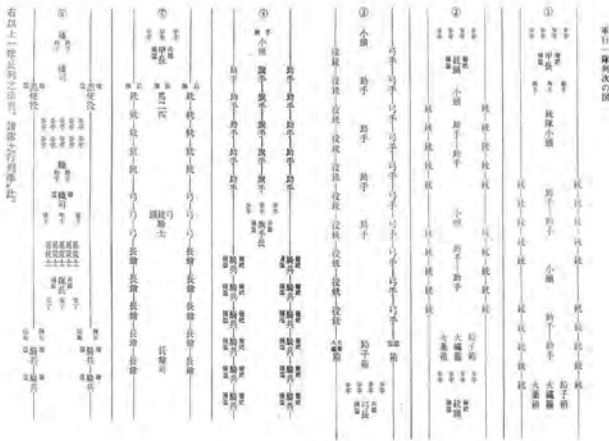
72) 『兵要錄』 권6, 「編步」, 「編騎」(石岡久夫 編, 『日本兵法全集4, 長沼流兵法』, 人物往來社, 1967, 100~103쪽).

73) 『兵要錄』 권6, 「合編步騎」(石岡久夫 編, 『日本兵法全集4, 長沼流兵法』, 人物往來社, 1967, 106쪽).

74) 石岡久夫, 『日本兵法史』(下), 雄山閣, 1972, 2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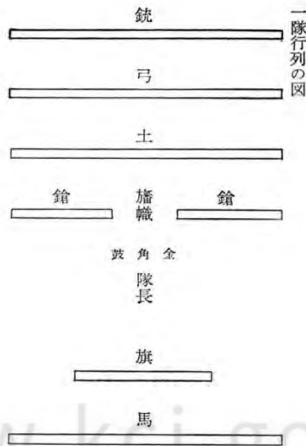
75) 『兵要錄』 권16, 「行列」(石岡久夫 編, 『日本兵法全集4, 長沼流兵法』, 人物往來社, 1967, 210쪽). ‘一隊行列 甲長一名先驅 次銃隊弓隊 次旌旗 次騎兵(右兵器 左頭盔) 次甲長一名 爲騎士之殿 次隊長之弓銃長鎗 次旌幟·金鼓·兵器(鎗鉞眉尖刀) 次隊長(親兵先後 差使役左右) 詳載之圖’

〈그림 5〉「軍行一隊列次之圖」



이 그림을 통해 鐵砲 - 弓 - 騎兵의 다음에 長槍手가 隊長의 앞에서 행군하고 있어 그 전술적인 중요성은 상당히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투시 군사들이 배치되는 다음의 陣法 그림인 〈一隊行列之圖〉를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一隊行列之圖



이 〈一隊行列之圖〉를 통해 長槍兵의 역할은 지휘관인 隊長의 앞에서 旛幟 좌우에서 호위를 담당하는 대단히 보조적인 군병으로서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76)</sup> 즉 長槍兵의 역할이 16세기 중반 전투의 승패를 겨루던 주요 병종에서 이제는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없는 弓이나 鐵砲 足輕을 방어하고 武士의 돌격 이후에는 측면에서 방어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sup>77)</sup> 이러한 모습은 『兵要錄』 권12의 「教旗麾下陣列之圖」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sup>78)</sup>

1660년대 이후 長沼流에서 나타난 鐵砲의 비중 증대 및 弓의 축소, 그리고 長槍의 보조 군병으로의 역할 축소 등은 17세기 전반기 대규모 화약무기가 사용된 여러 전투의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후 일본의 군사 편성은 대체로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17세기 말 9개의 備(총원 5,438명)로 구성된 前橋酒井家の 군단 구성을 보여주는 다음의 〈표 1〉을 보면 17세기 후반 일본의 군사적 변화의 양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당시 각 備는 旗奉行隊, 鐵砲隊, 長柄隊, 騎馬隊, 軍監, 士大將, 弓隊, 小荷駄隊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79)</sup>

〈표 1〉 17세기 말 前橋酒井家の 軍團 구성<sup>80)</sup>

	武士				足輕				中間	又者	職人	人足	小荷駄		合計	
	騎馬	徒士	小姓	小計	鐵砲	弓	鎗	小計					口取	馬	人	馬
小屋懸部隊	1	1		2	10			10		10	50	10	10	92	11	
①高須準人備	46	2		48	60	25	31	116	24	217		128	45	45	578	91
②松平内記備	36	2		38	60	25	31	116	24	172		122	39	39	511	75

76) 『兵要錄』 권17, 「陣法」(石岡久夫 編, 『日本兵法全集4, 長沼流兵法』, 人物往來社, 1967, 218~219쪽).

77) 根岸茂夫, 『앞의 책』, 2000, 27쪽.

78) 『兵要錄』 권12, 「教旗之法」(石岡久夫 編, 『日本兵法全集4, 長沼流兵法』, 人物往來社, 1967, 178쪽).

79) 高木昭作, 『위의 책』, 1990, 203~215쪽.

80) 高木昭作, 『앞의 책』, 1990, 326쪽의 〈표 1〉.

③松平左忠備	36	2		38	60	25	31	116	24	166		122	39	39	505	75
④本多民部左衛門備	36	2		38	60	25	31	116	24	165		118	40	40	501	76
⑤内藤半左衛門備	36	2		38	60	25	31	116	24	164		111	40	40	493	76
⑥酒井頼母備	36	2		38	60	25	31	116	24	159		116	39	39	492	75
⑦酒井彈正備	15	2		17	60	21	31	116	24	131		72	30	30	386	45
⑧若殿楊備	42	21	27	90	48		60	108	30	175		82	64	64	549	106
⑨御旗本備	63	51	57	171	65	48	90	203	98	345	29	258	227	227	1331	290
합계	347	87	84	518	533	219	367	1129	306	1694	39	1179	573	573	5438	920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대체로 각 備의 구성과 크기는 비슷한데, 9개 備 중 ②~⑥까지는 대체로 구성과 규모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로서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는 本多民部左衛門備의 예를 보면, 武士 38명(騎馬 36, 徒士 2), 足輕 116명(鐵砲 60, 弓 25, 鎗 31), 中間 24명, 又者 165명, 小荷駄隊의 口取 40명 등 총 501명의 인원과 馬 76匹로 이루어져 있다. 전투원인 武士 및 足輕의 경우만을 보면 16세기 후반인 1577년 小田原後北條氏が 그 지배하의 岩槻城主 太田氏에 지시한 군단 편성 방식에 비해 武士의 비중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48% → 24%), 足輕의 경우에는 鐵砲가 약 52%를 차지할 정도로 철포의 비중이 급격히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7세기 초부터 나타나던 鐵砲의 비중 증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적으로도 그 이전 사격의 정확성을 중시하던 것에서 足輕집단에 의한 일제 彈幕사격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환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sup>81)</sup> 弓隊는 비중이 鐵砲의 절반 이하가 되어 전술적인 중요성이 매우 낮아졌다. 鐵砲의 비중이 높아짐에 비해 예전에 가장 비중이 높았던 장창(鎗)의 비중은 鐵砲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6세기 후반 이후 鐵砲가 鎗을 대체하고 주력 兵種이 된 것이다. 鎗足輕은 그 성격도 이전에 공격 병종의

81) 久保田正志, 『앞의 책』, 2008, 48쪽.

성격에서 鐵砲를 엄호하는 방어적 병종으로 전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鐵砲兵이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장창이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野戰에서 鐵砲兵의 장창의 엄호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 방어를 위해 곡식 자루로 쌓은 낮은 담장(胸牆, 囲壁)을 이용하여 銃眼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나타나기도 하였다.<sup>82)</sup>

18세기 초가 되면 鐵砲의 비중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봐왔던 前橋酒井家の 군단을 구성하는 9개 備 중 앞서 검토하였던 本多民部左衛門備의 군사 구성을 보여주는 다음의 <표 2>를 살펴보자.

<표 2> 18세기 초 前橋酒井家の 本多民部左衛門備의 군사 편성<sup>83)</sup>

	武士	奉公人	足輕	中間	人足	口取	小計	乘馬	駄馬	小計
旗差	2	5	16	5	4	1	33	1	1	2
鐵砲組	1	5	36		11	2	55	1	2	3
鐵砲組	1	4	36		11	2	54	1	2	3
長柄組	1	2	30		3	2	38	1	2	3
騎馬隊	22	58					80	22		22
目付	3	5				1	9	2	1	3
太鼓	2				3	1	6		1	1
士大將	1	27				4	32	2	4	6
弓組	1	4	19		5	11	30	1	1	2
小荷駄	1	2	4		2	8	17	1	8	9
合計	35	112	141	5	39	22	354	32	22	54

위의 <표 2>를 보면 18세기 초 本多民部左衛門備의 경우 총원 354명 중에는 주 전투부대는 足輕과 騎馬隊였다. 足輕의 경우 두 개의 鐵砲組와 각각 한 개의 弓組, 長柄組가 편성되어 있고 騎馬隊 1개가 있었음을 알 수

82) 金子常規, 『兵器と戦術の日本史』, 原書房, 1982, 135-136쪽.

83) 高木昭作, 『위의 책』, 1990, 326쪽 「表2」.

있다. 그 외 備의 旗手와 신호용 鼓手, 사령관인 士大將과 보조인인 奉公人, 그리고 치중병인 小荷駄 등이 편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鐵砲組에는 足輕이 각각 36인씩이 있고 長柄組와 弓組에는 足輕이 각각 30인, 19인이 있다. 그 외에 騎馬隊에는 武士 22인과 奉公人 58인 등이 있다. 즉 18세기 초의 本多民部左衛門備에는 足輕 구성이 鐵砲가 72인, 弓이 19인, 長柄이 30인으로서, 鐵砲에 비해 弓兵의 수와 비중이 17세기 말보다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25인 → 19인). 대신 鐵砲는 60인에서 72인으로 증가하였고 長柄(鎗)은 큰 변화가 없다. 즉 17세기말~18세기초에 걸쳐 鐵砲의 전술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弓의 전술적 의미는 다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弓의 비중과 전술적 역할은 아직도 일정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군사제도와 전술의 흐름은 17세기 전반기부터 나타난 鐵砲의 전술적 중요성과 비중 증대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18세기 초까지 鎗과 弓의 비중은 낮지만 일정한 수준으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 4. 17세기 이후 조선의 전술 변화<sup>84)</sup>

### 1) 임진왜란과 조선의 전술 변화

16세기 후반의 戰國時代와 조선과의 2차례 대규모 전쟁은 일본의 전술과 군사조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 추세는 17세기 후반까지 계속되었지만 弓과 長柄足輕 계속 잔존하는 등 몇 가지 점에서 이전의 전술과 편성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조선은 16세기 말 일본과의 전쟁과 함께 17세기 북방의 女眞 勢力과 3차례의 대소 전쟁을

84) 본 장은 필자의 다음 논문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盧永九, 「仁祖初-丙子胡亂時期 朝鮮의 戰術 전개」, 『韓國史學報』41, 2010 ; 盧永九, 「朝鮮後期 城制變化와 城郭史的 意味」, 『震檀學報』88, 1999 ; 노영구, 「16-17세기 鳥銃의 도입과 조선의 군사적 변화」, 『한국문화』58, 2012 등.

치르면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한 전술적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16세기 후반까지 조선은 북방 女眞族의 침입이 가장 주요한 위협이었으므로 기병을 중시한 편제와 기병 돌격과 弓矢와 화약 무기 중심의 전술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근접전을 위한 전술과 무기체계를 적절히 갖추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의 패배는 大刀와 長槍 등 기존의 근접전 능력에 더하여 신형 화기인 鐵砲로 무장한 일본군의 전술적 우위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조선은 명나라의 새로운 전술로 16세가 중반 戚繼光이 개발한 이른바 浙江兵法를 도입하였다. 이 전술은 먼저 각종 화포와 火箭을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이어 새로운 근접전 병기인 防牌, 長槍, 鎗鈸, 狼筈 등을 이용하여 근접전을 벌이도록 한 보병 중심의 전술체계였다. 그리고 이에 적합하도록 조선의 군사제도는 완전히 변화하였다. 한성의 訓練都監 창설과 지방의 東伍軍 편성이 그것이다.

浙江兵法은 기본적으로 군사 10명의 隊가 최하 단위이고 3개 隊가 1旗, 3개 旗가 1哨, 5개 哨가 1司, 5개 司가 1營을 편성 원리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防牌, 長槍, 鎗鈸, 狼筈를 가진 근접전 군사(일명 殺手)를 중심으로 편성하되 1개 司에는 반드시 鳥銃(=鐵砲)로 구성된 1개 哨를 두도록 하였다. 즉 전체 군사에서 鳥銃兵의 비중은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殺手인 것이다. 弓兵은 따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長槍兵이 弓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시 사격하도록 하였다. 이 전술은 원래 騎兵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보병 중심의 전술이었다. 그러나 이 전술은 조선에 도입되어서는 상당한 변형이 불가피하였다.

먼저 임진왜란 중 일본의 조총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조선은 砲手(=조총병)을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殺手の 훈련을 보급하는데 노력하였다. 다만 기존의 장기인 弓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군사인 射手도 남겨두도록 하였다. 임진왜란 중인 1594년 11월의 訓練都監의 편성을 보면 砲手 7哨, 殺手 4哨, 射手 2哨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군의 경우에도 이 무렵 砲手, 殺手, 射手로 편성하였는데 기존의 射手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군사의 배치는 대체로 殺手 - 砲手 - 射手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일본의 조총 도입 시기의 전술과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전쟁 기간 중에는 아직 浙江兵法이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었고 화약무기가 중시된 당시의 전쟁 상황에 따라 이후 상당한 변형이 나타났다.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초부터 조선은 만주의 건주 여진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이 당면하였던 전술적 문제는 기존의 전술과 군사체제로는 야전에서 여진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기 어려운 점이었다. 실제로 선조 38년(1605) 5월 忽濫 女眞을 공격하던 조선군 3천여 명이 50명에 불과한 여진 기병의 돌격에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있었다.<sup>85)</sup> 이 전투 이후 조선은 평지에서 조총 사격으로는 기병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아울러 여진 기병의 갑옷은 궁시로는 관통이 어렵고 총통으로만 관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sup>86)</sup> 後金の 군대는 철갑으로 방호된 기병의 돌격을 중시하는 전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일본군에 효과적이었던 보병 위주의 절강병법을 그대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다. 기병의 돌격을 막기 위해서는 위력이 큰 조총을 갖춘 砲手를 대규모로 양성하여 연속으로 사격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였다. 다만 조총은 雨天시에 사격이 어려웠고 발사속도가 느렸으므로 상당한 규모의 射手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실제 17세기 초 明의 후금에 대한 반격 전쟁에 참여한 조선군은 砲手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초기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였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 사격하기 어렵게 되면서 크게 패하였다. 이후 砲手와 함께 射手를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조총이 전쟁의 주된 병종이 됨에 따라 殺手는 이전의 근접전을 통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던 주도적 병종에서 점차 포수의 엄호가 주된 역할을 하는 다소 보조적인 병종으로 성격이 변하였다. 殺手도 근접전이 벌어지기 직전까지는 砲手와 함께 火箭이나 弓矢를 사격하도록 훈련이 요구되었다. 특히 후금 기병의 활동을 견제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융통성 높은 騎兵의 중요성이

85) 『宣祖實錄』 권187, 선조 38년 5월 壬辰.

86) 『宣祖實錄』 권188, 선조 38년 6월 庚戌. 이 전투와 조선의 대여진 전술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장정수, 장정수, 「17세기 전만 朝鮮의 砲手 양성과 운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01, 32쪽 참조.

부각되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조선은 射手, 殺手, 砲手, 騎兵 등 다양한 병종을 함께 육성하고 이를 통합한 전술을 고안하여 후금(이후 淸)에 대항하려 하였다.

## 2) 병자호란 이후 조총 위주의 군사 편성

17세기 중반 일어난 淸과의 전쟁(丙子胡亂, 1636)은 조선의 기존 전술이 가진 장단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전쟁 이후 조선의 전술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여러 전투 경험을 통해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조총이 弓矢보다 매우 우수하다는 점이 확인된 점을 들 수 있다. 조총은 낮은 발사속도와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높은 관통력으로 기병의 돌격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었으므로 이후 조총을 중심으로 조선군의 편제를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실제 17세기 중반 이후 射手를 砲手로 전환하면서 射手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砲手の 비중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병자호란 직후인 인조 17년 정월 어영군의 변상 군사 100여 명 중 포수와 사수의 비중이 절반이었는데 이중 사수를 포수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였다.<sup>87)</sup> 이에 사수 중에서 우수하지 않은 자는 포수로 전환하고 殺手를 폐지하도록 하였다.<sup>88)</sup> 이는 지방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인조 26년 함경 감영의 군병 중에서 장관이 거느린 8천 군사 중에서 포수가 4천여 명에 달하여 포수의 비중이 전체 군병에서 절반을 넘었다. 게다가 궁시는 군병들이 각자 준비한 것이 없어 관에서 지급하고 3차 정도 사격할 정도로 그 군사적 비중은 상당히 낮아졌다.<sup>89)</sup> 이는 인조 5년 정묘호란 당시 한성으로 올라왔던 지방군의 경우 전체 군사에서 포수의 비중이 20% 내외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sup>90)</sup> 그 20여 년 사이에 조선군의 병종 구성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87) 『承政院日記』 제68책, 인조 17년 정월 15일 癸酉.

88) 『承政院日記』 제72책, 인조 17년 12월 17일 己亥.

89) 『承政院日記』 제204책, 효종 8년 10월 8일 己卯.

90)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戊午.

다음으로 淸이 사용한 紅夷砲 등 대형 火砲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화포의 제작과 城郭 체제의 변화가 나타났다.<sup>91)</sup> 병자호란 직후인 1644년 明 멸망 이후 성립된 南明 정권과 鄭成功의 海上 세력은 홍이포 등 크고작은 서양식 火砲를 갖추고 淸軍의 공격에 대항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1557년에는 일시적으로 南京이 鄭成功 세력에 장악되기도 하였다. 이에 淸軍도 明 말기의 화기를 대량 제조, 장비하여 이에 대응하였다.<sup>92)</sup> 화포는 이후에도 전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하였다. 17세기 중반 흑룡강 일대로 진출한 러시아 세력을 저지하고자 러시아 세력의 근거지인 雅克薩(Yakesa) 성을 둘러싸고 1580년대 러시아와 청군이 대규모 전투를 벌일 당시에도 청군은 홍이포 등 다량의 대형 화포와 각종 火箭 등을 동원하여 雅克薩성에 대해 수일간 포격을 가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sup>93)</sup> 즉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 양상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조선의 경우 실제 인조 이후 孝宗(1649~1659), 顯宗(1659~1674) 시대에 紙砲, 銅砲, 南蠻砲 등 각종 신형 화포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수어청 등에 別破陣 등의 화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대가 창설된 것은 변화하는 전쟁 상황의 반영이었다.<sup>94)</sup>

조총의 성능이 개량되고 포수가 주요 병종으로 전체 군병에서 큰 위치를 점하게 되자 사수의 경우 효종대 중앙 군영에서는 거의 소멸하였다. 다만 지방군의 경우에는 아직 사수가 적지않게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95)</sup> 이와 함께 살수의 전술적 역할과 형태에서도 변형이 나타났다. 이전에 다양한

91) 盧永九, 「17世紀における朝鮮城郭の發達に關する一試論」, 『倭城研究シンポジウムⅡ, 倭城』, 城館史料學會, 2011, 84~85쪽.

92) 王兆春, 『中國火器史』, 軍事科學出版社, 1990, 255~258.

93) 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 編著, 『中國戰爭發展史』(上), 人民出版社, 2001, 502~504쪽

94) 노영구, 「17世紀 朝鮮의 火器發達 推移와 關聯 兵書의 刊行」, 『朝鮮의 政治와 社會』, 集文堂, 2002.

95) 효종 4년(1653) 조선에 표류하였던 하멜의 표류기에 따르면 조선의 중앙군은 기병은 궁시와 도리개로 무장하며 보병은 화승총과 칼, 短槍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지방의 승군은 칼과 궁시로 무장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중앙군의 경우 보병은 射手가 없이 대부분 포수로 이루어져 있었고, 지방군의 경우 아직 사수의 비중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헨드릭 하멜(김태진 옮김), 『하멜표류기』, 서해문집, 2003, 111~112쪽).

단병기를 가진 여러 형태의 殺手도 槍劔兵으로 통일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유럽 전쟁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16세기 중반 근접전 군사를 중심으로 총병을 결합한 스페인의 방진 전술인 Tercio의 경우에도 초기 근접전 군사가 방패수인 sword-and-buckler나 미늘창병인 halberdier, 그리고 창병인 pikeman 등이 혼합되어 있었으나 이후 이들의 수가 점차 줄어가다가 창병(pikeman)과 총병(arquebusier)이 동일한 비율로 형성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sup>96)</sup>

17세기 후반이 들어서면 조선의 전술에서 殺手는 이전의 砲手의 전방 엄호 역할도 점차 약해져 여러 부대에서 그 존재가 거의 없어지거나 아니면 대열의 후위에 위치하여 전투에서의 역할이 미미해져 갔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 대규모 기병 부대가 창설되고 鞭棍을 이용한 기병의 돌격 전술이 중시되었다. 당시 조선군은 적군이 120미터 이내로 들어오면 조총의 연속 사격을 실시하였고 계속하여 적군이 다가와 60~70미터 이내로 들어오면 騎兵이 일제히 돌격하는 전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각종 화포를 이용한 전술도 도입되었다. 이처럼 17세기 말부터 조선은 騎兵과 조총병을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화포를 통합한 조선 특유의 ‘三兵戰術’이 확립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유럽에 비해 야전용 화포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 5. 맺음말-근세 조선과 일본의 전술적 상이점과 전략문화, 사상에의 영향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군사체제의 최대 목표 중의 하나는 기병의 일제 돌격을 화기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96) Trevor N. Dupuy, *The Evolution of Weapons and Warfare*, (1984, Da Paco Press) pp.113~114

조선은 청과의 전쟁 이후에도 계속 우수한 기동력을 가진 청의 군사력으로 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다. 조선에서 조총의 개량과 연속 사격 전술의 도입, 弓兵과 殺手 등을 포수와 함께 육성한 것은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 아울러 야전용 화포 및 적정 규모의 기병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즉, 군사적 긴장이 계속 유지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사정이 다소 달랐다. 17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세키가하라 전투(關ヶ原合戰)와 오사카성 전투(大坂の陣), 시마바라의 난(島原の亂) 이후 대규모 전쟁을 겪지 못하고 평화기가 됨에 따라 17세기 전반 野戰 전술과 군사조직에서 여러 변화가 나타난 이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鐵砲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등의 편제 및 전술적인 변화는 나타났지만 18세기 전반까지 弓과 長槍이 상당한 비중으로 끈질기게 잔존하고 있음은 이를 반영한다. 18세기 후반까지 새로운 화기 제작 보다는 다소 변칙적이고 유희적인 砲術이 유행한 것도 평화의 시대에 따른 양상이었다. 따라서 조선과 같이 조총 등 화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전술상, 편제상의 전환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일본에서 17세기 중반 이후 실전적 전술을 담은 軍學 대신 추상적인 군사사상인 兵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평화적 시대의 산물이다.<sup>97)</sup> 다만 18세기 후기 海洋으로부터의 대외적 위협이 발생하자 天山流 등이 등장하여 1778년에는 좌우 180도, 상하 80도로 선회가 자유로운 야전포대인 一種周發臺가 완성되고 새로운 전술이 개발되기도 하였다.<sup>98)</sup> 즉 보병의 근본적 개혁보다는 大砲의 제조와 砲兵의 확장을 통해 이러한 대외적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江戸時代에 완만하나마 확장되었던 병종이 포병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영한다.<sup>99)</sup>

대륙으로부터의 계속된 위협과 해양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상이한 요소는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이후 戰略文化 및 전략사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97) 野口武彦, 『江戸の兵學思想』, 中央公論社, 1999.

98) 宇田川武久, 『鐵砲と戰國合戰』, 吉川弘文館, 2002, 30-33쪽.

99) 久保田正志, 『江戸時代前期の大砲と砲手・砲術家』, 『軍事史學』186, 2011, 74쪽

된다.<sup>100)</sup> 조선의 경우에는 해군보다는 육군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야전 전술에서의 다양한 요소, 즉 기동과 화력의 요소를 함께 중시할 뿐만 아니라 수세성과 함께 공세성을 고려하는 전략 사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비해 일본은 육전의 경우에는 화력을 우선하는 양상을 띠게 되고 해군의 강화를 통한 해양지배권을 중시하는 전략문화가 나타나게 된다. 아울러 일본 본토 주변의 영토 확보를 추구하게 된다.<sup>101)</sup> 근세 이후 두 나라의 전략문화 및 전략사상의 상이점은 17세기 이후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의 상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투고일 : 2012. 6. 28, 심사수정일 : 2012. 8. 10, 게재확정일 : 2012. 8. 14)

주제어 : 임진왜란, 총병(銃兵) 족경(足輕), 병서(兵書), 사수(射手), 기병(騎兵)

100) 전략문화란 ‘군사력에 관한 사고 및 행동 양식’으로서 전략문화는 전략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독자적으로 전략 방침을 결정하는 요소로 기능한다(Colins S. Gray, *Modern Strategy* (Oxford, 1999) p.130).

101) 일본의 전략문화에 대해서는 권태환, 「일본의 전략문화와 전쟁수행방식」, 『전략문화와 전쟁수행 방식』, 육군사관학교 발표문, 2009, 43~49쪽에 자세하다.

<ABSTRACT>

##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tactics of pre-modern Japan and Korea in 16~17th Century

Roh, Young-koo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changes of tactics in pre-Modern(近世) Korea and Japan.

Changes in the tactics of pre-modern Japan was generally known to be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muskets, but basically the emergence of Ashigaru(足輕)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infantry battle was important phenomenon. Increased importance of infantry in battles and musket(鳥銃) which were introduced in the Japanese military system affected quite a few tactics. After the Imjin war confirmed the importance the muskets. There was a fundamental change in military institutions in Japan. This 17th-century Japanese military Manual(兵書) and military organizations can be found to confirm the change.

Triggered by Imjin War and three wars with Qing China, Joseon accelerated the change on tactics. The occasion of Imjin war, Joseon's infantry tactics were switched to the Zhejiang systems replacing cavalry to infantry soldiers. Until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through a variety of Branch of the army, Joseon was to prepare for the attack of the Juchen. In addition to Musketeer, Archer(射手) and cavalry force(騎兵) were fostered. However, since the mid-17th century, particularly after the manchuria invasion, it was proved that muskets were effective in deterring the attack by the cavalry forces. Thus Joseon's military systems were changed to musket-centered systems. Therefore, the number of archers was drastically reduced.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17th century, the threats from the continent and the sea influenced greatly the strategy of Korea and Japan. The

differences in the strategies of the two countries were caused by the differences in their historical experiences since the 17th century.

Key Words : Tactics, Musketeer, Imjin War, Ashigaru(足輕), military Manual  
(兵書), Archer(射手), cavalry force(騎兵)